

SK케미칼, 웰빙 사회봉사활동 전개

프로합창단과 청운양로원 위문 ... 작은사랑 큰 행복 음악회 지속 선사

SK케미칼이 프로합창단과의 Joint 봉사, 웰빙 요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며 봉사문화 창조에 나섰다.

2004년 7월부터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온 SK케미칼 자원봉사단은 2005년 들어 종전의 자연보호, 환경미화 등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탈피해 웰빙요가 등의 신개념 사회공헌활동을 선보였다.



특히, SK케미칼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봉사활동과 녹여내 딱딱한 기업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동과 흥미의 장을 마련했다.

3월 초에는 첫번째 웰빙 사회봉사활동으로 바하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모테트합창단과 동반해 구기동에 위치한 청운양로원에 음악회를 개최했다.

<작은사랑 큰 행복 음악회>에서는 80여명의 할머니를 모시고 35명의 젊은 성악가들이 젊은 시절에 정겹게 들었던 가곡과 동요를 선사했으며, 할머니

니들은 큰 박수로 봄노래에 찬사를 보냈다.

SK케미칼은 <작은사랑 큰 행복 음악회>를 계기로 앞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모니를 선사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3/23>